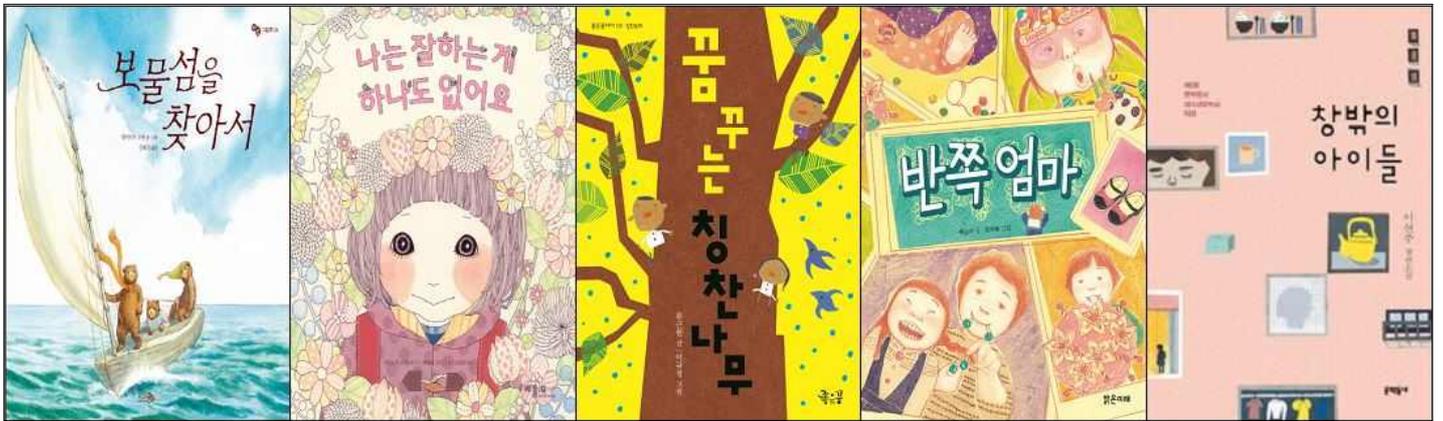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선정)

# 2015 『여름방학 권장도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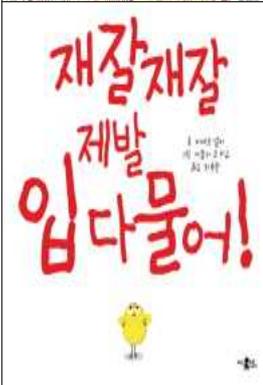
##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선정 2015 여름방학 권장도서 목록

번호	청구 기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권장 학년	비치 자료실
1	유 539.9- ㄱ 366ㅎ	행복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모하메드 파우지 이브라힘 칼레드 글·그림	숨쉬는책공장	유아	유아누리
2	유 808.3- ㄱ 271ㄱ-9	흰곰과 겨울나무	스티븐 마이클 킹 글·그림	같이보는책	유아	유아누리
3	유 808.9- ㄱ 571기-68	빨간 장화의 지구 여행	필커밍스 글, 사라 액턴 그림	주니어김영사	유아	유아누리
4	유 808.9- ㅅ 788-143	사계절	퍼트리샤 헤가티, 브리타 테크트럽 글·그림	키즈엠	유아	유아누리
5	유 833.8- ㄱ 476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스노키 시계노리 글, 후루쇼 요코 그림	베들북	유아	유아누리
6	유 833.8- ㅇ 464ㅎ	한밤중 한 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	오쿠하라 유메 글·그림	길벗어린이	유아	유아누리
7	유 843- ㅇ 254ㅎ	하늘꽃이 내 동생을 데려옵니다	잉거 마이어 글, 마리아 보가데 그림	씨드북	유아	유아누리
8	유 843- ㅅ 422ㄴ	보물섬을 찾아서	데이비드 소먼 글·그림	천개의바람	유아	유아누리
9	유 843- ㅇ 245우	유기견 노먼과 한 가족 되기	캐럴라인 애더슨 글, 친 령 그림	내인생의책	유아	유아누리
10	유 863- ㄷ 59ㅅ	재잘재잘 제발 입 다물어!	피에르 델리 글, 마갈리 르 위슈그림	미운오리새끼	유아	유아누리
11	199.1- ㄱ 216ㄱ-9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	김은중 글, 문종훈 그림	개암나무	1-2 학년	책누리1
12	539- ㅇ 983ㅅ	집으로 가는 길	프란 프레스톤 개논 글·그림	걸음동무	1-2 학년	책누리2
13	650.99- ㅍ 11ㄹ	레오나르도다빈치 :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천재	장·밥티스트 드 파나피유 글 뤼디빈 스톡 그림	아름주니어	1-2 학년	책누리1
14	813.8- ㄹ 822ㄱ	꿈꾸는 칭찬나무	류근원 글, 이규경 그림	좋은꿈	1-2 학년	책누리1
15	813.8- ㅇ 891지	지리산 반달곰	이지엽 글, 김현아 ; 송인영 ; 한지영 ; 홍윤 그림	고요아침	1-2 학년	책누리1
16	813.8- ㅇ 946ㅅ	수리수리 셈도사 수리	이향안 글, 최미란 그림	시공주니어	1-2 학년	책누리1
17	813.8- ㅇ 948ㅅ	친구를 사귀고 싶어	이현주 글, 천필연 그림	리틀씨앤톡	1-2 학년	책누리1
18	843- ㅍ 52ㅇ	오늘은 내가 스타! : 수줍음 많은 아이를 위한 책	패트리샤 폴라코 글·그림	나는별	1-2 학년	책누리1
19	863- ㄹ 818ㅇ	무섭지 않아	멜라니 뤼탕 글·그림	산하	1-2 학년	책누리1
20	911- ㅇ 527스-1	웃기고 냄새나는 역사 속 똥오줌 이야기	설흔 글, 최현묵 그림	스콜라	1-2 학년	책누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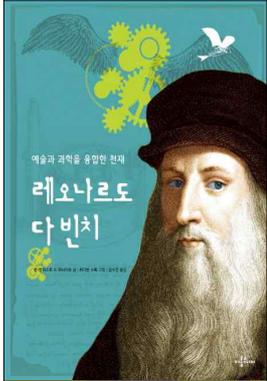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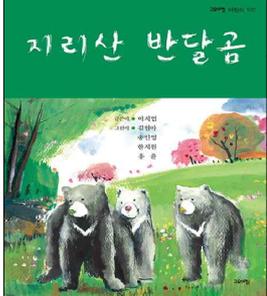
21	108- ㅅ 256ㅇ -2	세상을 다시 그린다면	다니엘 피쿨리 글, 나탈리 노비 그림	이마주	3-4 학년	책누리1
22	321.5- ㅅ 562ㅅ	자신만만 직업여행 : 미래의 멋진 꿈을 이루어 주는 19가지 직업 이야기	최옥임 글, 김민정 외 그림	아이즐Books	3-4 학년	책누리2
23	443.1- ㄷ 95ㅂ	밤하늘이야기 : 초등학생에게 들려주는 우주 별 행성의 모든 것	마이클 드리스콜 글, 메레디스 해밀턴 그림	거인	3-4 학년	책누리2
24	517.3- ㅅ 654ㅅ	사람은 왜 매일 잠을 잘까?	소피 슈바르츠, 이리나 콩스타 틴스쿠 글, 오렐리랑 데바 그림	다산기획	3-4 학년	책누리2
25	808.9- ㅇ 176ㅂ -22	반쪽 엄마	백승자 글, 정지혜 그림	밝은미래	3-4 학년	책누리1
26	808.9- ㅇ 338ㅎ -7	코끼리는 내일 온다	남상순 글, 김다정 그림	해와나무	3-4 학년	책누리1
27	813.7- ㅇ 218ㅇ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안오일 글, 김선배 그림	크레용하우스	3-4 학년	책누리1
28	813.8- ㅅ 246우	위대한 동말	서석영 글, 허구 그림	바우술	3-4 학년	책누리1
29	813.8- ㅎ 333나	나는 슈갈이다	한영미 글 남궁선하 그림	어린이나무생 각	3-4 학년	책누리1
30	843- ㅇ 994ㅇ	안녕, 티시킨	그렌다 밀러드 글 캐럴라인 매걸 그림	자주보라	3-4 학년	책누리1
31	108- ㅅ 54ㅅ -14	박지원, 열하로 배낭여행 가다	김경윤 글	탐	5-6 학년	책누리1
32	199.4- ㄱ 866ㄱ	걱정 먹는 우체통 : 걱정쟁이들에게 전하는 응원 편지	김응 · 김유 엮고 씀	하늘을나는교 실	5-6 학년	책누리1
33	334.3- ㄱ 522ㄴ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 친구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지 않기	필리스 카우프만 굿스타인 ; 엘리자베스 버딕 [공]글 신민재 그림	길벗스쿨	5-6 학년	책누리2
34	650.4- ㅇ 633ㅇ	영화는 영화를 남긴다! :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에서 만나는 영화 이야기	윤영숙, 조윤행, 박연화 글, 김이한 그림	책교	5-6 학년	책누리1
35	810.82- ㅇ 748ㅇ -28	창밖의 아이들 : 이선주 장편소설	이선주 글	문학동네	5-6 학년	책누리1
36	813.7- 05680	우리는 가족일까	유니게 글	푸른책들	5-6 학년	책누리1
37	813.8- ㅂ 662ㅂ	별빛 아이	배봉기 글, 정수영 그림	북멘토	5-6 학년	책누리1
38	816.5- ㅅ 428ㅅ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정약용 글, 박지숙 엮음	보물창고	5-6 학년	책누리1
39	823.7- ㅅ 158ㄴ	나는 개입니까 : 창신강 장편소설	창신강 글	사계절출판사	5-6 학년	책누리1
40	843- ㅇ 332ㄴ	나는야 베들레헴의 길고양이	데보라 엘리스 글	책속물고기	5-6 학년	책누리1

## 그림 책

	<b>행복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b>	<b>모하메드 파우지 이브라힘 칼레드 글·그림</b>	<b>숨쉬는책공장</b>
<p>행복바다는 깨끗한 바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바다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어부들은 어린 물고기들까지 몽땅 잡아갔다.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물고기들은 죽어갔다. 이에 바다의 왕은 사람들에게 바다를 계속 괴롭히면 떠난다고 경고를 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바다의 왕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지구가 더럽혀지고 물고기와 같이 인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동화책이다. 행복바다를 떠난 물고기들을 다시 바다로 불러 오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 해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p>			
	<b>한밤중 한 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b>	<b>오쿠하라 유메 글·그림</b>	<b>길벗어린이</b>
<p>한밤중 한 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 제목부터 궁금증을 유발한다. 검은 모자들은 한밤중 한 시에 창문으로 슬쩍 들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아이들의 이불을 살짝 덮어준다. 언뜻 무섭고 불안하여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책장을 넘길수록 검은 모자들의 동그란 얼굴과 친근하고 익살스런 모습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된다. 검은 모자들이 이집 저집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하는 행동은 작지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다.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를 통해 작은 일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p>			
	<b>빨간 장화의 지구 여행</b>	<b>필 커밍스 글, 사라 액턴 그림</b>	<b>주니어김영사</b>
<p>브리디는 다섯 살 생일에 빨간 장화를 선물로 받는다. 빨간 장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브리디와 함께한다. 계절이 바뀌고 브리디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발이 너무 커져서 장화가 맞지 않아 신을 수 없게 되자 브리디는 빨간 장화를 멀리 여행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수 있는 예쁜 마음을 그리고 있다. 나눔이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p>			
	<b>흰 곰과 겨울나무</b>	<b>스티븐 마이클 킹 글·그림</b>	<b>같이보는책</b>
<p>나뭇잎이 떨어지고 흰 눈이 오는 계절이 오면 흰곰은 겨울잠을 자야 한다. 하지만 흰곰은 슬퍼하는 렌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겨울잠을 미루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 렌의 슬픔을 달래준다. 다채롭게 변하는 푸르른 색채는 풍성한 흰곰과 어우러져 차분히 감성을 일깨우고 편안하게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친구가 힘들 때 같이 놀면서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때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p>			
	<b>유기견 노먼과 한 가족 되기</b>	<b>캐럴라인 애더슨 글, 친령 그림</b>	<b>내인생의책</b>
<p>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된 노먼과 그 가족 이야기이다. 엉덩이춤을 잘 추는 노먼은 똑똑하지 못해 가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노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노먼이 중국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온 가족이 중국어 배우기에 열중한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았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가족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p>			

	<b>하늘꽃이 내 동생을 데려옵니다</b>	<b>잉거 마이어 글, 마리아 보가데 그림</b>	<b>씨드북</b>
<p>벤과 에밀리는 사이좋은 남매로 밖에서 놀때면 하늘 꽃인 나비 찾기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보낸다. 아픈 동생을 위해 에밀리는 하늘 꽃을 그려주기도 하고 베개도 만들어 준다. 어느 날 동생은 하늘 꽃처럼 훨훨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 곁을 떠난다. 동생을 잃은 슬픔에 에밀리는 검은 먹구름만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에밀리는 엄마 아빠 그리고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차츰 일상으로 돌아오고 동생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무겁고 낯설긴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있는 그림책이다.</p>			
	<b>사계절</b>	<b>페트리샤 헤가티 글, 브리타 테쿰트럽 그림</b>	<b>키즈엠</b>
<p>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에 따라 숲이 변해가는 모습을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색채로 아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숲을 덮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봄에는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다. 꽃과 나무 동물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는 숲속의 모습을 통해 자연에 순응하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터득할 수 있다. 특히 책에 구멍을 뚫은 독특한 디자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p>			
	<b>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b>	<b>구스노키 시게노리 글, 후루쇼 요코 그림</b>	<b>베틀북</b>
<p>사랑이는 자신이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리고 공부도 못하는 못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 속상해하고 눈물도 흘리는 마음이 여린 소녀이다. 이런 사랑이의 고민을 들은 우정이가 사랑이의 손이 따뜻한 것이 좋은 점이라고 알려준다.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아닐까?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스러운 책이다.</p>			
	<b>재잘재잘 제발 입 다물어!</b>	<b>피에르 델리 글, 마갈리 르 위슈 그림</b>	<b>미운오리새끼</b>
<p>아홉 번째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입다물어는 재잘재잘 말이 많다. 항상 궁금한 것도 신기한 것도 많은 입다물어는 부모, 형제, 소, 돼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 하지만 다들 입다물어에게 수다를 그만 떨라고 소리치자 결국 수다쟁이는 농장을 떠난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질문하는 법도 중요하다고 엄마닭이 세 가지 약속을 들어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질문도 잘하고 들을 줄도 아는 멋진 아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p>			
	<b>보물섬을 찾아서</b>	<b>데이비드 소먼 글·그림</b>	<b>천개의바람</b>
<p>곰 삼형제는 엄마가 보물처럼 아끼는 푸른색 소라 껍데기를 깨뜨리고 만다. 엄마가 무서워 셋은 새 소라 껍데기를 찾기 위해 먼 항해를 시작한다.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긴 모험을 떠난 곰 삼형제는 그 속에서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겪고 해결해 나가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나간다. 생각과 마음이 한 뼘씩 자란 이들 삼형제는 자신들이야말로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까? 삼형제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도 한 뼘씩 자라날 것이다.</p>			

## 1~2학년 도서

	<b>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b>	<b>김은중 글, 문종훈 그림</b>	<b>개암나무</b>
<p>포포는 울부짖는 사자, 공 굴리는 아기 곰, 줄 타는 곡예사, 기운 센 차력사, 멋진 마술을 펼치는 마술사, 서커스 단장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릿광대 포포는 입 크고 다리 짧은 개구리로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 줄 수도 있었을텐데 포포처럼 나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건 아닐까? 어릿광대 포포와 함께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치고 말하는 돌을 찾는 모험을 함께 하다보면 포포처럼 우리 자신도 가끔은 똑똑하고 가끔은 용감한 멋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p>			
	<b>집으로 가는 길</b>	<b>프란 프레스턴 글·그림</b>	<b>걸음동무</b>
<p>얼음이 녹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게 된 북극곰은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난다. 판다와 오랑우탄, 그리고 지금은 멸종된 도도새를 차례로 만나 친구가 되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게 된다. 이들은 과연 모험의 끝에 새로운 집을 만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들 열대야, 대형 태풍과 폭우 등은 멸종 위기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도 위태롭게 한다. 이 책은 이러한 환경보호에 대해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지구 환경과 동식물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한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책이다.</p>			
	<b>레오나르도 다빈치 :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천재</b>	<b>장 - 밥티스트 드 파나피유 글, 르뤼디빈 스톡 그림</b>	<b>아름주니어</b>
<p>우리에게 모나리자로 익숙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과 업적을 중심으로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가 남긴 기록, 설계도, 후대에 재현한 모형 사진 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청소년기의 공방 시절을 거친 후 예술, 기계, 과학, 음악, 연극 심지어 당시에는 불가했던 해부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의 지성과 상상력, 깊이 있는 묘사력, 표현력, 현대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정도로 뛰어난 면면을 책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레오나르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생각, 고민들 무한한 상상과 현실과의 경계를 새로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p>			
	<b>꿈꾸는 칭찬나무</b>	<b>류근원 글, 이규경 그림</b>	<b>좋은꿈</b>
<p>교장선생님인 작가가 학교에서 '꿈꾸는 칭찬나무'를 가꾸며 경험한 것을 재미있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꾸렸다. 말썽쟁이 동구는 자신을 칭찬해달라고 칭찬나무에 편지를 매달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꾸로 칭찬은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어린 시절 선생님의 한마디 칭찬으로 교장선생님은 작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 칭찬은 물도 예쁘게 만들고, 밥도 더디게 상하게 하며 아픈 몸도 낫게 한다. 칭찬과 격려는 바퀴벌레를 공룡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한다. 책 속에 담긴 다양한 활동을 생활에 적용하여 나와 가족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마법을 우리도 체험해보자.</p>			
	<b>지리산 반달곰</b>	<b>이지엽 글, 김현아 ; 송인영 ; 한지영 ; 흥윤 그림</b>	<b>고요아침</b>
<p>사람들의 노력으로 지리산에 보내진 반달곰 삼남매 대한, 민국, 한나의 야생 적응기를 동화로 꾸렸다. 엄마 아빠와 헤어져 야생의 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늑대와 싸우기도 하고, 구렁이들에게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폭설 속에서 막내 한나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험난한 자연 속에서 갖은 고생을 견어내며 서로를 의지하며 의젓하게 성장하는 지리산 반달곰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을 해치고 파괴하여 공생을 무너뜨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동화이다.</p>			

	<b>수리수리 셈도사 수리</b>	<b>이향안 글, 최미란 그림</b>	<b>시공주니어</b>
<p>셈도사 수리에게 고을의 큰 부자인 박영감이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 그런데 못된 박영감은 셈도사 수리를 이용하여 혼자만 이익을 챙기고 마을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 아이들에게 헛갈리는 곱셈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백 년 전 아이에게는 수학이 왜 필요했는지, 수학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깨닫게 하며 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셈은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셈이란 게 있다'는 따뜻한 수리 철학도 담고 있다.</p>			
	<b>친구를 사귀고 싶어</b>	<b>이현주 글, 천필연 그림</b>	<b>리틀씨앤독</b>
<p>친구를 사귀는 게 서툰 가빈이와 한별이가 가빈이 이모의 조언에 따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로 담았다. 서로 다른 가빈이와 한별이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수룩하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닮았다. 이 책은 가빈이 이모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 비법을 알려 준다. 학교 적응을 도와주며 친구와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북돋워 준다.</p>			
	<b>오늘은 내가 스타! : 수줍음 많은 아이를 위한 책</b>	<b>패트리샤 폴라코 글·그림</b>	<b>나는별</b>
<p>패트리샤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수줍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트랜치나 담임 선생님, 연극반 웨인 선생님, 엄마의 배려와 격려 속에서 연극반 겨울 공연을 함께 준비하며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갖게 된다. 작가의 어릴 적 경험인 듯 생생한 이야기는 수줍음 많은 아이가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멋지게 보여준다. 남과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패트리샤처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도록 북돋워 준다. 책 속 다채로운 색감들은 멋지고 당당하고 싶은 아이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하다.</p>			
	<b>무섭지 않아</b>	<b>멜라니 뤼탕 글·그림</b>	<b>산하</b>
<p>걱정 많은 사슴,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픈 아기 토끼, 걸핏하면 화를 내며 전쟁놀이를 즐기는 꼬마 병정, 언제나 같은 꿈을 꾸는 고양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책, 그리고 그림자. 이들 모두는 우연한 만남 속에서 다투고 그리워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각기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행동을 하며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된다. 글의 여백을 그림이 채우며 반복되는 상징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4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픽션부문 라가치상을 받았다.</p>			
	<b>웃기고 냄새나는 역사 속 똥 오줌 이야기</b>	<b>설흔 글, 최현묵 그림</b>	<b>스콜라</b>
<p>신라 김춘추와 김유신의 누이동생, 고려 김부식과 정지상, 조선시대 경종과 영조, 열하 일기를 쓴 박지원까지 친숙한 역사 속 인물들에 관련된 똥오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등 저학년들이 자칫 지루해 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첫 역사책이다. 똥오줌이라는 가벼운 주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들과 역사에 대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 3~4학년 도서

	<b>세상을 다시 그린다면</b>	<b>다니엘 피쿨리 글, 나탈리 노비 그림</b>	<b>이마주</b>
<p>'내가 만일 세상을 다시 그린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각 세계 아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들려준다. 친구들이 희망에 부풀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고정관념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다시 제시한다. 이 책은 세계 각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미래의 꿈을 들려준다. 세계 각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주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준다.</p>			
	<b>자신만만 직업여행</b>	<b>최옥임 글, 김민정 그림</b>	<b>아이즐 Books</b>
<p>이 책은 각 직업을 소개하고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각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하루를 제시하여 마치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또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어서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잡아 준다. 아울러 부모님도 알아야 하는 직업의 특성을 제시하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도와 주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직업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 홀랜드의 직업 적성 유형도 제공한다.</p>			
	<b>밤하늘 이야기</b>	<b>마이클 드리스콜 글, 메레디스 해밀턴 그림</b>	<b>거인</b>
<p>밤하늘의 별과 놀랍고 신비한 우주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진 어린이를 위한 우주 안내서이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의 수수께끼, 우주비행사와 천문학자 등 우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어려운 용어는 '우주 용어 사전'을 참고할 수 있으며, '퀴즈! 퀴즈!'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다양한 상식도 배울 수 있다. 풍부한 사진과 삽화는 별과 행성, 우주에 대한 이해도와 책에 대한 흥미도를 높인다.</p>			
	<b>사람은 왜 매일 잠을 잘까?</b>	<b>소피 슈바르츠, 이리나 콩스타틴스쿠 글, 오렐리랑 데바 그림</b>	<b>다산기획</b>
<p>뱅상과 친구들이 수면연구소로 특별 현장 학습을 가면서 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책이다. '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까?', '왜 피곤하면 졸릴까?', '자는 동안 뇌도 활동을 멈출까' 등 잠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잠이 우리의 건강과 키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학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다루어 단숨에 읽을 수 있다. 뱅상과 함께 수면연구소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자!</p>			
	<b>반쪽엄마</b>	<b>백승자 글, 정지혜 그림</b>	<b>밝은미래</b>
<p>송주와 엄마는 놀이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루미를 만나다. 송주의 엄마는 루미를 친딸처럼 돌봐주게 되고, 송주는 엄마를 반쯤 뺏겼다는 생각에 루미에게 질투를 느낀다. 시간이 지나고 송주도 루미와 통하는 게 생기고 정도 쌓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루미에게 왜 그렇게 잘해줬는지도 알게 된다. 작가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로 동화를 시작하고, 편견 없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을 보여준다. 송주와 루미의 마음이 크고 넓어지는 과정이 따뜻하게 전달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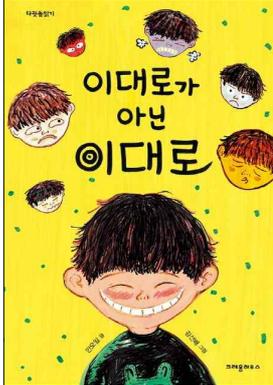


**코끼리는 내일 온다**

**남상순 글, 김다정 그림**

**해와나무**

낭시우는 777년 전 인도의 어느 숲에서 코끼리 하티와 헤어졌다. 그리고 히말라야 바람의 도움으로 양배네 마을의 정원이 예쁜 집 마당에서 상아로 남아 오고 있는 하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굴착기가 그 집과 정원을 부수고 낭시우와 히말라야 바람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오게 된다. 777년 전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코끼리 하티를 꼭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낭시우의 믿음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 기다림들, 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내일 올 나의 코끼리는 어떤 모습일까? 낭시우와 인도식 정통 카레를 먹으며 힘을 내어 나의 코끼리를 상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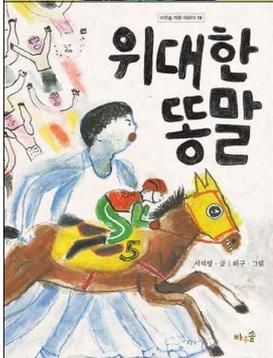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안오일 글, 김선배 그림**

**크레용하우스**

어떤 것이든 쉽게 싫증내는 '이대로'는 과제도 학원도 매년 중간에 그만 둔다. 친구에게도 외면당하고 나서 혼자 산에 오르던 '이대로'는 나무에 빠지게 되는데 그 나무에서 탈출하려면 단계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각 방을 거칠 때마다 노력하는 것이 싫어 나비가 되는 것을 포기한 애벌레와 마주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이대로와 함께 단계별 시험을 통과하며 끝까지 해냈을 때의 쾌감과 현실로 돌아와 포기했던 것들에 다시 도전하는 '이대로'를 보면서 중간에 포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내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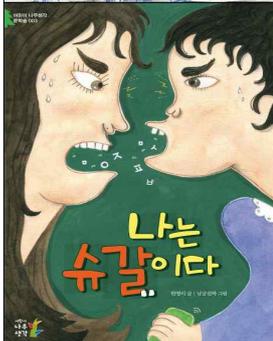


**위대한 똥말**

**서석영 글, 허구 그림**

**바우솔**

현수의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되고, 편의점을 운영하지만 어깨는 늘 축 쳐져 있고 집안 분위기도 어둡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현수와 함께 경마장에 가서 '똥말'을 소개해준다. '똥말'은 100번째 경기에 출전하였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경기마인데 이 모습이 자신과 아빠를 닮았다는 생각에 '똥말'의 팬이 된다. '똥말'이 101번째 마지막 경기 후 은퇴가 아닌 승용마로 도전하는 것을 보며 현수는 마라톤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완주를 하게 된다. 그리고 훗날 기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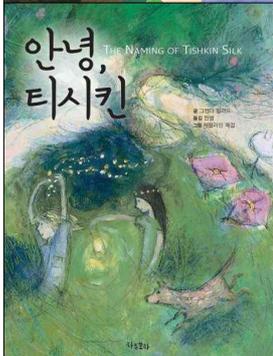


**나는 슈갈이다**

**한영미 글, 남궁선하 그림**

**어린이 나무생각**

돌출된 입이 콤플렉스인 수아는 같은 반 교우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친구의 외모비하를 일삼는 태영이의 놀림거리가 된다. 태영이와 그 무리들의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힘 있는 태영이 앞에서 다른 친구도 수아를 외면하여 제2의 가해자가 된다. 수아는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웃주민인 병글씨의 조언으로 슬기롭게 해쳐나간다. 이 책은 '왕따'나 교우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방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관계 형성을 위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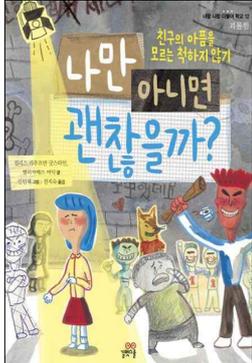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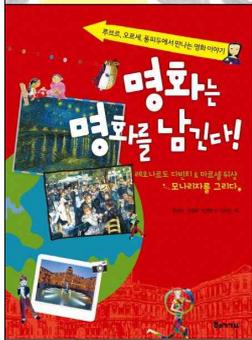
**안녕, 티시킨**

**그렌다 밀러드 글, 캐럴라인 매걸 그림**

**자주보라**

엄마가 자신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리핀은, 학교에 가게 된 첫 날부터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상처를 받는다. 혼자인 그리핀에게 공주 같은 라일라가 다가오며 서로 소통하게 되고, 라일라와의 우정으로 커다란 용기가 생겨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리핀의 가슴 속 비밀이 무엇인지는 마지막까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동화 전체를 아우르는 라일라와의 우정과 가족 간의 사랑은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 5~6학년 도서

 <p>박지원, 열하로 배낭여행 가다</p>	<p><b>박지원, 열하로 배낭여행 가다</b></p>	<p><b>김경윤 글</b></p>	<p><b>탐</b></p>
 <p>걱정 먹는 우체통</p>	<p><b>걱정 먹는 우체통 :걱정쟁이에게 전하는 응원편지</b></p>	<p><b>김응, 김유 엮고 씀</b></p>	<p><b>하늘을 나는 교실</b></p>
 <p>나만 아니면 괜찮을까?</p>	<p><b>나만 아니면 괜찮을까?</b></p>	<p><b>필리스 카우프만 굿스타인, 엘리자베스 버딕 [공]글, 김민재 그림</b></p>	<p><b>길벗스쿨</b></p>
 <p>영화는 영화를 남긴다!</p>	<p><b>영화는 영화를 남긴다</b></p>	<p><b>윤영숙, 조윤행, 박연화 글, 김이한 그림</b></p>	<p><b>책교</b></p>
 <p>창밖의 아이들</p>	<p><b>창밖의 아이들</b></p>	<p><b>이선주 글</b></p>	<p><b>문학동네</b></p>
<p>가족이란 무엇일까? 따뜻한 위로란 무엇일까? 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작가가 당시 만났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상한 소설이다. 주인공 란이가 여섯 살 때 가출한 엄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는 아빠,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는 할머니! 고작 열여섯에 벌써 삶에 지친 란이가 아프고 힘든 이웃들과 기나긴 겨울을 통과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시시콜콜 묻지 않고 내미는 할머니의 설탕물 한 컵처럼 위로는 아주 사소한 몸짓에서 시작된다. 지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기에 좋은 소설이다.</p>			

	<b>별빛 아이</b>	<b>배봉기 글, 정수영 그림</b>	<b>북멘토</b>
<p>민수는 단짝 진수와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져 속상하다. 민수는 진수와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민수가 집 베란다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순간 별뿔별이 반짝 빛나게 되고, 집 근처 공원 호수의 작은 섬에서 이상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조선 시대에서 왔다는 귀성이와 만나게 되면서 진수는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청동 거울과 별빛을 매개로 시공간을 초월한 우정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p>			
	<b>우리는 가족일까</b>	<b>유니게 글</b>	<b>푸른책들</b>
<p>5년 만에 동생이 미국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의 이혼으로 일곱 살 때 헤어졌던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혜윤이는 동생이 몹시 낯설게 느껴진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에서 혼자 견고한 미니어처 집을 짓던 혜윤이는 엄마의 죽음으로 방향을 하게 된다. 동생을 선택하고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으로 엄마를 원망했던 혜윤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엄마의 사랑법이었음을 깨닫고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아픈 결핍의 가족사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행복, 고통을 마주한 순간에 시작되는 성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p>			
	<b>(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b>	<b>정약용 글, 박지숙 엮음</b>	<b>보물창고</b>
<p>정약용은 조선 시대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설계한 관리이자 학자이다. 그는 규장각에서 중요 정책을 연구했고,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혼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노론의 배척으로 서학(西學)에 연루되어 18년간이나 유배되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와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 학문에 대한 태도를 전한다. 가족과 제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는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바른 태도를 가르쳐준다.</p>			
	<b>나는 개입니까 : 창신강 장편소설</b>	<b>창신강 글</b>	<b>사계절</b>
<p>이 책의 주인공은 지하 배수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한 마리의 개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상으로 통하는 '창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지상의 인간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지상 세계로 올라간 '나'는 어느새 인간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나'가 인간이 되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개의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도 하나같이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개가 보는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이상한지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다.</p>			
	<b>나는야 베들레헴의 길고양이</b>	<b>데보라 엘리스 글</b>	<b>책속물고기</b>
<p>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상처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피부로 와 닿을까? 미국의 13살 소녀였던 클레어는 교통사고 후 베들레헴 길고양이로 다시 태어난다. 다른 고양이들에게 쫓기던 클레어는 우연히 군인들을 따라 낯선 집에 들어가게 되고, 겁에 질린 채 숨어있는 소년 오마르를 만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고양이는 총성을 멈추게 하는데..... 미국 소녀와 이스라엘 길고양이의 관점이 교차하며,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일깨운다.</p>			

메 모